

교회목표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자 구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 11:40)

순례자

발행인: 이 종 윤

발행처: 서울 장로 교회

주 소: 서울 강남구 논현동 165-18

전 화: 517-7651~5

F A X: 512-1225

93년도 교회 표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비전 2000운동 추수기에

• 마지막 한 주까지 거룩한 사역에 동참해야 •

우리교회 설립당시 50일간 기도회를 가진후 교회설립을 하게 된것을 기억하면서 전개되었던 '93 비전2000운동이 지난 10월 첫주부터 시작되어 다음 주일에 그막을 내리게 된다.

일곱 가지 기도제목을 놓고 그동안 다락방별로 12시간 연속기도회와 70인전도대의 토요일 노방전도 그리고 전교인들이 매주 7장 이상의 전도지 배포 그리고 태신자 갖기운동등 전도사역과 기도에 초점을 마

춘 이번 비전2000운동은 교회학교 학생들까지 참여하여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되었다.

지금까지 참여하지 못했던 성도들은 남은 마지막 한주간 동안만이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수 있는 이 거룩한 사역에 동참해 줄것을 운동본부에서는 당부하며 태신자를 위하여 남은 동안 더욱 기도의 불을 붙여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제4학기 목회자 세미나 내일 종강

—배운것을 교회갱신과 성장에 적극 실천해야—

한국교회의 갱신을 의식하며 전국각지에서 모여 배움의 자리를 뜨겁게 했던 제4학기 목회자 세미나가 마침내 10주간의 일정을 마치고 내일로 종강하게 되었다.

이번 세미나는 「목회자의 경건과 설교」라는 주제로 지난 9월 13일(월) 부터 오는 11월 14일(월) 까지 10주간 연속되었으며, 이종윤 목사의 「성경적 교회성장」과 10분의 국내외 훌륭한 석학들의 연구논문들은 매 시간마다 모여든 목회자들의 골수를 쫓아내기 위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빼어난 강의들이었다. 앞으로 한국교회에 제2회 주기철, 손양원, 길선주, 스피전, 윗월드, 피니, 물러, 번연과 같은 목회자들이 나올 것을 기대해 본다.

특별히 이번 세미나로 4학기를 전부마친 수강자들의 제1회 수료식을 갖게 된다. 수료자는 총 91명으로 앞으로도 계속 함께 목회자 세미나에서 공부하며 한국교회갱신을 위한 동역자로 힘써야 할 것이다.



* 이종윤 목사는 11월 19일(금) 오전 10시 새문안교회 여전도회 연합회 특별초청 강연을 광화문

에 위치한 새문안교회당에서 한다.

* 장신대 신대원 재학생 50명이 11월 18일(목) 오후 7시 우리교회를 방문하는데 이종윤 목사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목회”라는 특별강의를 한다.

청년부 바자회

—모임과 나눔의 장—

청년부(부장: 오정수 장로)가 주관한 바자회가 지난 12일(금)과 13일(토) 이틀간에 걸쳐 많은 성도들과 지역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풍성하게 열렸다.

청년부 회원들의 재활용에 대한 관심의 시발로 계획된 이번 바자회는 각 가정에 잠재되어 있는 재활용품을 모아 필요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자는 차원에서 그 성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더우기 각 여전도회의 지원으로 활성화된 이번 바자회는 청년부 내의 결속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는 후문이다.

수익금은 차후 결산, 발표될 예정이며, 이것은 교회가 선교와 구제의 목적으로 사용할 것이다.



☐.....입시생들이여!

너는 마음에 두려워 하지 말라.

너의 하나님의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창세기강해



이종운 목사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창 3:16~19)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앞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메시아가 오실 놀라운 소망이 주어졌고 그들은 죄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보였는지 모르나 오늘 본문에는 아담과 하와와 모든 인간들 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인생들에게 떨어지는 저주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이 주어졌다고 해서 그 복음이 나에게 효과적으로, 자동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라는 말입니다.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한 아무리 복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해도 그 말씀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저주가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인류 최초의 조상이 되는 아담과 하와가 어떤 저주 아래 있었을까요?

1. 하와가 받은 선고

여자의 모습을 가진 하와가 받은 저주는 두 가지인데 잉태하는 고통과 남편에게 종속된 존재가 되는 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① 잉태의 고통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16절) 고통을 증가(increase)시키는 무서운 저주가 하와에게 주어지고 있는데 여자가 출산하는 것이 저주가 아니라 출산에 고통이 따른다고 하는 것이 인간이 범죄한 저주의 산물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② 남편과의 관계가 변개됨

본래 인간이 처음 창조될 때에는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게 하나님의 피조물로 창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와가 먼저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부끄러운 저주를 받고 만 것입니다.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16절) 남편을 사모한다는 말은 남편을 질병같은 욕망으로 바라보아야 될 것이며 남자

에게 복종을 하며 살아야 할 것임을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2:11~12에서 사도 바울이 여자가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겠다고 한 이유도 먼저 여자가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공효가 보여집니다. 남편을 사모한다는 말씀은 여자가 예속되기는 하지만 자기를 사랑해주는 남자에게 속할 것임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멸망의 저주가 아니라 이 저주 속에서도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앞에 공효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21에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공효입니다. 이 공효가 없었다면 인간은 고통속에서 더 이상 존재 하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딤후 2:15) 결국 우리에게 희망이 끊어진다고 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저주 가운데서도 희망을 주시는, 공효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2. 아담이 받은 선고

아담은 심리적이고 내면적인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외형적이고 객관적인 저주를 받게되었습니다. 아담은 변명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 변명을 인정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와가 그를 유혹했으나 아담이 거절 할 수도 있었습다. 그러나 아담도 동참했기 때문에 아담이 죄를 진 것이라고 하

나님은 판단을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변명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노엽게 할 뿐 우리는 하나님앞에서 어떤 종류의 변명도 해서는 아니됩니다.

① 땅의 저주

땅이 어떻게 저주를 받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아담이 살고 있는 땅을 저주하십니다. 우리가 범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리시기 전에 먼저 우리 환경과 주변을 때리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만드시려고 하십니다. 아담은 그가 살던 에덴 동산의 낙원에 더 이상 거하지를 못하고 쫓겨나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저주 받은 땅에서 살아야만 합니다. 욥기 39:6과 시편 68:6에서는 이와같은 땅의 저주를 적나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땅에 곡식이 풍년이 되고 아름다운 과일이 매달리게 된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자연의 섭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주한 이 땅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공효를 베푸신 증거이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② 땀 흘리는 수고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는다라는 말은 고통을 말합니다. 노동은 신성한 것입니다. 인생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노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통이 오는 것은 우리가 받아야 할 당연한 형벌인고로 우리는 이것을 참고 견디고 이길 수 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노동을 하면서 고통이 온다고 불평을 해서 안되는 이유는 고통이 올때마다 나는 죄인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깨달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거기서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는 이제 고통이 있으나 먹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뱀처럼 흙을 먹는 것이 아니고 들에 채소를 먹게 된다는 것으로 저주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공효임을 믿으면서 감사와 회개를 부단히 해야 될 존재인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③ 수명의 단축

구약에 모두셀라라 같은 사람은 장수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사는 동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고 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이지 삶의 목표를 이룰 수 없는 상태에서 길게 산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저주를 길게 하는것 밖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여자가 해산을 할때 고통은 육신적인 고통만이 아니라 심리적인 공포를 말합니다. 해산의 날에 진통처럼 조만간에 죄인들에게 무서운 심판의 고통이, 사망의 고통이 올것임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재촉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될 것입니다. 죄인은 죄의 종 됨을 즐거합니다. 여자가 남자의 종속이 되어서 격화된 것은 영적인 자유와 의지의 자유를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죄를 범한 인생들에게는 선에는 불모지가 되고 악한 결실 밖에는 맺어 놓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돌아오기 전에는 희망이 없고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 선이 없음을 자복하며 주님께로 돌아와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우리는 땀을 흘려야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서도 땀흘리는 수고를 통하여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 이종운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837KHz) 매주 화요일 오전 5시 35~6시(성경교실)

극동방송(HLKX 1188KHz) 매주 금요일 오전 9시~30분(나의 갈길 다가도록)

이세이방송(HLAX 1566KHz) 매주일 오전 8시~30분(주일설교),

매주 화요일 오전 4시 10분~50분(재방송)

이 영혼들을 구하여 주옵소서

(지난주에서 계속)

1교구 : 최행미(고경미), 최난수(최진삼, 최진철, 김석중, 김성희, 최진석, 노향숙, 권금자, 주현주, 윤만동), 배은희(배상일, 유창종), 송명자(엄기순, 김형순, 김수영, 김종일), 김주아(김영규, 최범순, 김병희, 김경환, 김선희, 김재국, 남궁희, 변미경, 장진성, 정금영, 임혜숙, 김경애, 박선영, 정옥엽, 박영숙, 이지연, 문정아, 김주미, 홍선균), 한정아(김원중, 하현네, 박기상), 박연순(정미근, 박기수, 이석철, 양순자), 심상순(권창권, 전준열, 이윤정, 함정선, 최미연), 강금지(이지현, 장은경, 서인근, 임경남, 정덕수), 노영숙(김준형), 김숙자(김재봉, 최은혜, 김윤태, 황옥자, 정혜진), 김정애(이권호, 이수혁, 이수현, 이진혁), 한선희(이성찬, 이영진)

2교구 : 이월균(신용우), 이봉규(이차배, 백운기, 이미경, 이옥경), 허상환(박찬웅, 허상봉, 이상희), 최재춘(김순웅, 이경희), 정연택(전인재, 형양우, 최현숙, 형재경, 신동이, 김향숙), 하영수(하경수, 김숙희), 박정순(이시석, 박종순, 이재승), 김주아(강동진, 장두정, 강경숙, 강명자, 강경숙, 강명여)

3교구 : 박금옥(탁봉남, 탁봉재, 탁재영), 최죽희(최철준, 고한이, 최원철, 박강남, 백종철, 고명준, 이성연, 차대영), 조병식(조용만, 권오명), 백소현(이계향, 박순국, 이종애, 김유경), 유태영(유정임), 김주아(강인식, 신원균)

4교구 : 이영숙(김필호, 이춘자, 정성준, 김정자, 김현수), 최양혜(최양옥, 박순현, 김귀천, 이춘자), 유복달(정숙자), 최용걸(이윤섭, 이정자, 이준호, 이준영, 이준석), 이영신(안병현, 정숙채), 강영자(고광선, 최예순, 이영남, 김창구, 배혜옥), 정숙자(배임숙, 김추자, 정부진, 김인영)

5교구 : 이정자(구설환, 이동선, 전용일, 권오숙, 이정숙), 원복순(조병서, 원용순, 이상호, 이경민, 임재수), 이영렬, 최인영(서동열, 오광숙, 배재덕, 조연희, 송석진, 이순옥, 양재석, 박계순, 진복용, 양순정), 김복녀(김경옥, 안순진, 박순자), 여옥기(이근배, 최은숙), 허인숙(황길호, 한기희, 한순영, 한나영, 박정식, 이길호, 박용민, 용민호), 오규자(이우태, 김금녀), 유정희(유경숙, 이순덕, 이용호, 유경열, 지준배), 원복순(조병서, 이상호, 이경민, 임재수, 권영덕), 이맹영(변운열, 채태형, 이진중, 최재진, 김창희, 이희자, 김병남, 이우영, 실한주, 정동철, 이선자, 실수환, 박문열, 이득고, 배진순, 마정일, 최성진, 황정철, 황길호, 한기희, 황순영, 황나영), 송정희(유광호), 손순애(김학인, 주경자, 이양근, 손희란, 이원일), 김경희(김용진, 김옥란, 김영나, 김대은)

6교구 : 박동춘(송호성), 김일용(이관철, 이재익, 신규성), 김영란(김성대, 조경숙, 김민석, 김광석, 김화정), 김명자(송현석, 송하청, 최일산, 송경근), 권영숙(박승순), 이남복(이창현, 장재춘, 김옥순, 이병림), 안의경(강찬구, 김승록, 주창식, 이상호, 이규호), 정정숙(장수재), 유후자(이연규, 이성규, 최금진, 이미현, 이미정, 이일홍, 이한용, 김병하, 김병진, 김쌍룡, 김용은, 서정관, 오진숙, 이병근, 오상은, 오은주, 장석원)

7교구 : 송명주(송명숙, 정이훈, 김윤정, 강민화), 하정자(하태근), 이부자(민아, 유삼석, 강은순, 박은숙, 김민석, 김민식, 김민구, 박정희, 박남현, 박정은)

8교구 : 박상훈(황원기, 이창욱, 김홍원, 김근성, 여태성), 이연섭(장민자, 이용규, 박승진), 이성철(구자규, 권대환, 이동희, 공종식), 전춘자(장석준)

9교구 : 조정옥(홍동기, 근정훈), 문분순(지양용, 지춘구, 문영옥, 김완순, 문영식, 문재우), 김순자(김길용, 김정자, 김성진, 홍태석, 홍태용, 홍태호, 강영순), 강정옥(허성수), 조희숙(정복순, 이연희, 김법성, 오미숙, 이진수, 박용목), 조희숙(정화영, 신상한, 이삼진, 김상용, 김동근), 박분옥(고두환, 유명순, 고기태, 서정복, 고기성), 조정옥(조복행, 조운행, 장동숙, 최완옥), 이옥녀(조길환), 김순자(허봉수), 박평순(이행남, 박명옥, 선순애, 박이순, 극복순)

10교구 : 유영자(오정아, 오정미, 유성태, 유복병, 조명임), 정정덕(강원형, 정정옥, 김행경, 김행란, 이승옥, 김정옥), 권영자(유철호, 한정옥, 강점미, 신하순), 안순이(김진민, 김연희, 김성준), 이점숙(김상열, 이점자), 김양숙(정동홍, 정태원)

11교구 : 김선미(이은정, 염수진, 고재용, 김편순), 송만영(김수만, 박종신, 양사덕, 이병철, 장정일), 김경현(홍순엽, 손효자)

12교구 : 위성남(최영숙, 김윤채, 위성운, 홍기명, 김도환, 박운숙), 김정수(최란, 최진화, 최미숙, 김경남, 김창영), 김주아(전신오, 배현숙, 이국경, 이성호, 방종덕, 김규태, 임재근, 김현수, 김현주), 김대웅·박민호(박형주, 박상연, 이상수, 권선희, 정양순), 김형택(김세택, 김범구, 김성구)

축하합니다.

(월) 서울 강남노회 제13회 정기
노회가 열린 서울믿음교회에서

최병호 목사는 지난 11월 8일 목사안수를 받았다.

피택장로 7인과의 만남(Ⅶ)

이영열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바나바와 같이

“장로로 피택되고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이 하나님께서 과연 부족한 종을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하며 얻은 것은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과 진정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본래 우매한 존재이긴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사람의 방식대로 해석하여 왜곡할 때가 있습니다.”

실업인 선교회 회장으로 수고하는 이영열 집사님의 말씀이다.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객원 교수와 (주)제일엔지니어링 그룹의 상임고문으로 일하는 이영열 집사님은 부인 최인영 집사 사이에 2남 1녀를 두고 연로하신 어머니를 모시고 있다.

“기존 장로님들이 지금까지 교회를 잘 이끌어 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피택된 장로들과 함께 우리교회도 장로가 17명이 되었으니 성도 여러분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당회를 기대하셔도 좋을 것입니다. 활발하고 솔직하며 기탄없는 대화 가운데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일단 결정된 사항에는 피차에 순종하며 동역하는 당회가 되어야겠지요. 선배 장로님들도 후배 장로들을 많이 격려해 주시고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로 초년에 베들레헴 찬양대장을 맡게 된 이 집사님에게 성도들의 기대가 자못 크다.

이 집사님은 81년에 간암 3기라는 시한부 생명을 선고받게 된다. 이 사건은 본인과 그 가정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그 상황에서 제일 먼저 자신의 신앙을 스스로 조명해 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은 지금 생각해도 하나님의 큰 은혜였다고 이 집사님은 그 당시를 회고한다. 연약하지만 했던 신앙중에서 모든 약과 병원 출입을 끊고 오직 기도에만 힘쓰며 투병했던 이 집사님은 죽음을 이기고 일어서는 체험 신앙을 갖게 되었다.

“이 집사님이 바울과 동역했던 바나바와 같이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드리는 장로님이 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집사님이 장로로 피택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서 기도원으로 향했다고 하는 부인 최인영 집사님은 자타가 공인하는 기도꾼이다.”

이만열 교수 청년부지도로

우리교회 당회는 이만열박사 설하고 소장직을 맡고있는 이박(숙대교수)를 청년부 지도교역자 시는 한국교회사의 권위자이기도 하다.

한편 지금까지 청년부를 지도 하던 심상권박사는 매주 토요일 오후에 가정상담을 통해 우리교회 성도들을 돕게된다.

한국기독교 역사 연구소를 개

순례자칼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영수 집사

천지와 우주 만물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들이 얼마나 좋았으면 일곱번이나 거듭 좋았다고 하셨을까? 피조물들이 말씀하신대로 순종하였기 때문에 좋았다고 하셨을까? 당신의 목적하신 바에 합당하기에 그러셨을까?

만세전부터 예정하신 하나님은 인간들이 금방 배신할 것도 아셨고 인간끼리 질투하여 살인의 참극까지 벌이고 인간 까닭에 땅이 저주를 받을 것이고 세상에서 하나님을 찾는 의인이 하나도 없을 것도 아시는 하나님은 그래도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어린 아이 같은 심정으로 좋아하셨던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을 배반하고 거역한 인간을 구원코자 죄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죄인이 되어(인간들 눈에)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실 것을 예정하셨음에도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다.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사가꾼 야콥을 너는 나의 축복이라 하였고 시몬이 나는 모래 밖에 안됩니다 했을때 너는 바위라 하였고 너는 큰자라고 뽐내는 사울에게는 너는 작은 자(바울)라고 낮추셔서 당신의 합당하신 그릇으로 만들어 쓰셨다.

하나님을 가장 잘 믿고 구별된 삶을 산다고 자부하는 자들을 향하여는 외식하는자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준엄히 책망하시면서도 가난함으로 못배우고 무식하면서도 과격한 성격을 그대로 드러내는 야고보와 요한형제를 불러 제자로 삼으시고 보아니게 라는 애칭을 붙여 주셨다. 이 얼마나 자애로운 관용의 하나님으신가? 또한 멸망받을 자식으로 예정하신 가롯 유다의 배신을 아시고 "차라리 나지 아니하셨으면" 하고 깊은 연민의 정을 쏟으신 그 사랑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동안을 의인인체목을 공개하고 정죄의 잣대로 이웃을 판단하며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던가?

나 자신을 관용하기를 바다보다 넓게 하였고 형제 판단은 머리카락에 흠파듯 하면서 주님의 희생 위에, 내 손을 나를 위한 재물 모으기에 혈안이 되어 육신의 정욕이 가득하였고 세상을 보는 눈은 음란과 교만한 정욕에 불타고 기업의 번창과 후손의 형통함을 인생의 자랑거리로 삼아 오지 아니했던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최고의 평화로움 속으로 영접함을 받아 그 평안의 맨 끝 줄에나 세움을 받고 새롭게 변화를 받아 손잡고 함께 달려 가기를 원하자. 저 끝없이 푸른 가을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선언하시는 그날까지...

고3 취업 및 진학을 위한

기도 후원회 모임

고등부(부장 노문환 장로)는 3학년 학생들의 94년도 취업과 진학을 위한 기도 후원회 오늘 14일 오전 10시 30분에 2층 예배실에서 모임을 갖는다.

지금까지 한 학생마다 기도 후

원자들로서 장로, 권사, 학부모, 그리고 학생들이 배정되 함께 기도를 해왔다. 예년처럼 많은 기도 후원자들이 참여하여 위로와 용기를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추수감사절 행사-유치부 특별순서-

오늘 저녁 5시 찬양예배시에 유치부 어린이들이 금년도 추수감사절 특별 순서를 갖게 된다. 한편 다음주일 찬양예배시에 가

브리엘 찬양대가 주관하는 음악예배를 통해 추수감사절과 교회설립 2주년을 축하한다.

11월 세례 학습식 거행

11월 학습·세례식이 오는 수요일(17일) I·II부 예배시간을 통하여 시행된다.

학습·세례 희망자들은 먼저 새가족부에 문답 신청서를 제출

하고 월요일(15일) 오후 7시 새가족부실에서 있는 예배 문답교육과, 화요일(16일)에 있는 신앙문답에 빠짐없이 참여해 줄것을 요망한다.

초등부 어린이 찬양대 발표회를 갖기로

교회학교의 꽃인 초등부(부장 박철훈 장로) 어린이 찬양대는 예배시간에 드렸던 찬양곡들을 모아 11월 20일(토) 오후 5시 교회 2층에서 제1회 어린이 찬양대 발표회를 갖는다. 학부모님들과 여러 성도님들 그리고 전도할 친구들을 초대한 이번 음악회에 많은

참여를 통한 격려를 기대한다. 「노래하라 꽃들이여 세상에 오실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드려지는 발표회에 찬양하세, 생명의 양식 등 10여개의 찬양곡과 각종 기악연주가 있을 예정이다. 제1부 예배때 말씀은 최병호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다.

● 금주의 목회자 세미나 안내 ●

제 1 교 시	일시	제 2 교 시
14:00-15:30(90분)		15:50-17:20(90분)
하나님의 목회와 나의 설교 임택진 목사 (청량리중앙교회)	15일	성경적 교회성장 원리 이종운 목사 (서울장로교회)

서울주간기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1.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사명을 감당할 예배당을 짓게 하소서.
2. 목회자 세미나가 은혜롭게 마치고도록
3. 비전 2000운동이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 예배안내

구분	시 간
주일 예배	I 오전 9:00
	II 오전 11:00
	III 오후 2:00
찬양예배	오후 5:00
수요예배	I 오전 11:00
	II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12:0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5:30

■ 교회약도

